

현대 한국 고등학교의 종교교과서 연구*

김 종 서**

目 次

- I. 한국 고등학교의 종교교육과 교과서
- II. 공통 종교교육과정의 형성과 교과서의 변모
- III. 현행 종교교과서 내용 분석
- IV. 종교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안

I. 한국 고등학교의 종교교육과 교과서

19세기 후반부터 설립되어온 한국의 종립 중·고등학교¹⁾들은 1970년대까지 개별적으로 나름대로의 종교교과서들을 사용해 왔다. 예를

*이 논문은 2007년 2월 일본 다이쇼(大正)대학에서 열린 “종교교과서 국제 심포지엄”에서 영어로 발표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오늘날 한국의 종립 중·고등학교의 수는 약 400개이다. 이들 가운데 불교에서 설립한 중·고등학교가 20개이고, 가톨릭은 60개, 개신교는 270여 개 된다. 이러한 종립학교의 수는 전체 고등학교 가운데 10%가 약간 넘는다. 종립 중·고등학교는 정부의 허가를 얻은 공식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물론 비종교적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커리큘럼을 또한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종립학교는 본래 종교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주 단위로 채플과 같은 정기적인 예배와 매주 1시간 이상의 종교 수업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들어, 기독교 설립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경,” 그리고 불교 설립 중·고등학교에서는 “불교”와 같은 교과서들이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개정 되어 왔으나, 대개 성서와 불경 등을 기반으로 기독교와 불교 등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로 구성 되어 있었다.

물론 이렇게 한국 종립 중·고등학교들이 예전에 사용해 온 교과서들은 선교적인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는 것들이었다. 전통적 유교식 교육만이 있었던 한국에서 근대식 교육을 시작한 종립 학교들은 본래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봉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다 할만한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종교들에서는 대체로 해외에서 행해지고 있는 자기 교단의 종교교육에 관한 이론이나 자료들을 참조하여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 왔다.

그러다가 근대식 교육이 일반화되면서 세속적인 학교들이 많이 설립되었고 점차 종립학교들은 소수 특정화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육제도들은 주로 세속적인 (공립학교나 비종립인 사립) 학교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근대교육은 사실상 종립학교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들은 당연히 공식적 교육(official education) 기관으로서 인정은 받았지만, 점차 교육제도 속에서 별다른 관심과 배려는 못 받게 된다.

예컨대, 종교교육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는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해서는 아니 된다”(6조)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특정종교에 대한 종교교육”의 개념은 개종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선교적 “종파교육”을 의미한다.²⁾ 그런데 여기서도 국공립학교에 대해서만 금지가 되었을 뿐 종립학교에 대한 것은 별도로 규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종립학교들은 선교를 위한 종파 교육적 내용들을 교과서에 그대로 유지해 왔다.

한편 일반적인 한국의 종교지식교육으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사회’와 ‘도덕’이라는 현재의 교과서와 고등학교의 ‘역사’, ‘윤리’, ‘사회와 문화’와 같은 교과서에 특정 종교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교과서들 속에 있는 종교적인

2) 그러니까 학문적인 담구를 위한 “종교지식교육”이나 인성교육적 차원의 “종교 정조[religious sense]교육”은 어느 학교에서나 해도 된다는 것이다.

내용은 종교자체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제멋대로의 방식으로 종교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의 이해가 단편적이고 매우 체계적이지 못하며, 종교 전문가들이 교과서를 집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대개 피상적인데다가 오류도 흔히 있다.

그러니까 종교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은 종립학교에서 사용해온 교과서들뿐인데 이들은 선교용이지 정규 교과용은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상, 이들 종립학교들은 정규 교과목으로 종교과목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비학점) 교과목으로 개설해 왔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은 정상적인 교과목이 아니었다.³⁾

따라서 종립학교들은 종교교과의 정규화를 요청하게 되었고, 1982년 한국 교육부는 이것을 학생들의 자기수양과 인문학적 교양교육을 한다는 취지하에 수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 교과를 종립학교에만 정규화시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체 중·고등학교에 확대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⁴⁾ 아무튼 종교교과서들은 현대 한국의 중·고등학교에서 바로 이 종교 교과목의 정규화 이후에 비로소 공식 교과서에 포함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II. 공통 종교교육과정의 형성과 교과서의 변모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서의 종교교과의 정규화는 종립 중·고등학교를 위하여 교육과정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졌

- 3) 예컨대, 종교과목의 교사들은 정부가 인증하는 교사자격증을 갖출 수 없었고 그래서 정규 교사로서가 아니라 보조 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했다. 그 결과 이들 교사들은 그들의 지위, 연금 등에서 정규 교사와 같은 권한을 누릴 수 없었다. 학생들 또한 다른 정규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에 종교과목을 소홀히 하곤 했다.
- 4) 즉 종립학교 뿐 아니라 공립학교와 비종립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종교를 정규 선택 교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어떤 학교가 “종교”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한다면, 그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를 택하지 않을 선택권도 부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과목을 개설하기만 하면 된다고 규정되었다.

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경” 또는 “불교”라고 가르치던 기존 과목들이 선택과목으로 정규화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중립학교에서 종교과목의 이러한 정규화는 종교교과서가 기존의 다른 나라들에서처럼 자율적이고 심지어는 제멋대로이기도 했던 교육과정을 포기하고, 공식교육의 일부로서 종교교과의 특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새로(제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7~2002년) 표준화된 공통 종교교육과정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심지어 비종립이거나 공립인 학교의 무종교인 학생들까지를 다 포함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개발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처음 틀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중립학교가 그들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만 가르쳐온 틀에 박힌 교리적 가르침, 수행과 교회사 등을 단호하게 학문적으로 일반화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새로운 교육과정은 종교들의 일반적 이론들과 타종교 전통들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조했다. 하지만 “종교”교육의 정규화에 주도적 역할을 해 온 중립학교의 선교지향적 오랜 경향이 일시에 쉽사리 폐기될 수는 없었다.

결국 종교교육의 두 가지 측면, 즉(종교지식교육과 종교정조교육을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과 종파적인 특수적 교육 양자가 실용적으로 절충되었다. 또한 이러한 타협은 현재까지 한국의 중·고등학교 “종교” 교육과정의 핵심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것은 때로 교육 목표의 “모호성”으로 오해되고, 심지어 격렬한 논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종교” 교과 내의 이 두 가지 목적은 또한 현행(제7차, 2002~2007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과정에서 교양 선택과목으로서의 종교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목표로 하도록 정해 놓고 있다.

- (1) 종교에 관한 기본 지식과 보편적 이론을 이해하고,
- (2) 실존적인 물음과 탐구를 통하여 건전한 종교관을 정립하고,
- (3) 종교적 가르침을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마음을 길러주어 온전한 인격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을 양육하는 것이다.

5)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교양』(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p.

현행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현행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종교”의 구성 체계⁶⁾

분야	내용
1. 인간과 종교	궁극적인 물음과 문제, 종교와의 만남과 문제해결,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종교의 의의와 역할
2. 종교경험의 이해	여러 가지 인생 문제, 우주관 역사관 생사관, 경전과 종교적 규범, 종교 의례와 종교적 실천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종교 사상과 배경, 참된 것과 깨달음, 종교의 특성 이해
4. 세계 종교와 문화	유교와 도교, 불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기타 종교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인간관, 종교적 인간관, 종교적 자연관, 과학과 종교
6. 한국 종교와 문화	한국 불교와 문화, 한국 유교 및 도교와 문화, 한국 그리스도교와 문화, 한국 무속신앙과 민족종교
7. 종교 공동체	공동체의 이념과 구조, 종교의 사회적인 기능, 종교간 화해와 공존, 종교적 인격 형성
8.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	경전 교리 역사, 종교적 생활, 한국 종교와 문화 창조, 나의 종교생활 설계

마지막 여덟 번째 분야인 “특정 종교의 전통과 사상”은 종립학교가 가르쳐오던 기존 종파적 신앙 교육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보편적 종교교육과 (특수한) 종파적 종교교육 양자를 절충해내려다 보니 체계적이지 못한 면도 있다. 하지만, 공통 종교교육과정이 형성된 이후에 나온 종교교과서들은 그 이전의 것들에 비해 사뭇 다르다. 우선 내용면에서 전에는 전혀 없던 종교에 대한 일반 이론들과 타종교에 대한 지식들이 상당히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종교교육에서 이런 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⁷⁾

124.

6) 같은 책, p. 132.

7) 또 이렇게 새로 나온 교과서를 가르칠 “종교” 과목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과거 신학교, 불교대학과 같은 종교학교에서 비공식적으로 교사들이 추천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를 정규적으로 가르치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

이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집필된 “종교” 교과서가 “인정 교과서”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부과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실질적 인정은 지방교육청의 소관 사항이다. 지방 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종교학 교수와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심사를 위임한다. 지방교육청은 그들의 평가를 참조하여 인정권한을 행사한다. 실제 교과서 인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상의 사실 오류를 지적하고, 나아가 타종교에 대한 비난이나 왜곡된 기술을 판단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III. 현행 종교교과서 내용 분석

그러나 아무리 공통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제도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실제 집필된 종교교과서들은 체제와 내용면에서 꽤 차이가 있다. 주로 집필자들이 각개 교단 내의 사람들이어서 자기 종교의 입장에서 종교의 일반이론과 다른 종교를 보기 때문이다. 우선 현행 가장 대표적인 세 종단의 종교교과서⁸⁾를 목차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대조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대조된 교과서들은 현행 고등학교 종교교육과정에 맞추어 2002년에 출판되어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대체로 보편적 종교교육과 (특수) 종파적 종교교육의 양자를 조화시켜 보려

게 되었다. 즉, 오늘날 종교교사 자격증을 따려면, 교육학과목 외에도 다음의 11개 과목 중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종교학 개론’, ‘세계종교’ 또는 ‘종교사’ 또는 ‘비교종교학’, ‘한국종교’, ‘종교교육’, ‘종교현상학’, ‘종교철학’, ‘종교사회학’ 혹은 ‘종교인류학’, ‘종교심리학’, ‘종교학사’, ‘종교와 과학’과 ‘현대 종교’ 등이다.

- 8) 불교교육연합회 편, 『고등학교 종교(불교)』(서울: 대한불교조계종출판사, 2002),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고등학교 종교』(서울: 도서출판 가톨릭문화원, 2002), 한국기독교교회연맹, 『고등학교 종교(기독교) 상, 중, 하』(서울: 생명되 말씀사, 2002). 물론 이외에도 진각종(밀교계 불교), 원불교 및 안식교와 통일교 등에서 출판한 교과서들도 있으나 극소수의 학교에서만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표 2. (고등학교) 종교 교육과정과 교과서 목차 대조

현행 교육과정	종교(불교) 1권(278쪽)	종교(가톨릭) 1권(183쪽)	종교(기독교) 3권(392쪽)
1. 인간과 종교	인간의 삶과 종교	나를 찾아서	인간과 종교
2. 종교경험의 이해	인간의 삶과 종교	인간의 길	인간과 종교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세계의 종교		
4. 세계종교와 문화	세계 종교의 사상과 특성	이웃의 종교들	세계 종교의 전통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종교	인간의 길	
6. 한국종교와 문화	우리나라의 종교와 문화		한국인의 종교, 한국에 전래된 종교
7. 종교 공동체	현대 사회와 종교의 역할		현대 사회와 종교
8.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	불교의 출발 깨달음의 세계 대승의 진리 불교의 윤리 한국의 불교 불교와 예술 불교의 신행 문화의 창조 (135쪽/49%)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의 선택 행복의 찾아서 (105쪽/57%)	기독교의 경전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가르침 불교와 새로운 교회의 역사 기독교인의 생활 기독교인의 미래 (207쪽/53%)
기타 내용	이단원의 공부 를 위하여 연구문제 찾아보기	활동과 질문 찾아보기	이단원의 공부 를 위하여 연구문제

는 의도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을 가장 그대로 잘 반영해 보려고 한 것은 불교 측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포교적 의도는 남아 있지만 교육과정의 내용을 가능한 포괄해 보려는 노력이 보인다. 가톨릭에서 나온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좀 더 학생들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여 이해가 쉽게 풀어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한국종교에 대한 내용이 다른 책들에 비해 미약하다. “종교(기독교)” 교과서는 개신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도 옛날 ‘성경’ 교과서의 틀을 벗어나 세계의 다른 종교들과 한국의 종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총 3권으로 구성되다 보니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이 번잡스러운 감이 있다.

또 현행 교육과정의 “2. 종교경험의 이해”와 “3. 서로 다른 종교적 전통” 및 “7. 종교 공동체”는 이른바 (비교)종교학적 시각에서 종교경험의 다양한 표현 형식들의 총체적 이해를 목표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집필자들이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또는 그러한 총체적 이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대체로 생략되거나 다른 장에서 소략하게 다루어지거나 아예 다른 내용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에 대한 단순한 문화적 지식을 넘어서 인간적 삶 속에서 종교적일 수 있는 것이 지닌 궁극적 의미를 찾아내는 이른바 넓은 의미의 인성교육인 “종교적 정조교육”의 기반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현행 교육과정의 “5. 인간과 자연에 대한 종교적 이해”는 종교적 시각을 응용하여 인간관과 자연관을 성찰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교육과정의 내용들과 체계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인지 실제로 교과서들에는 그다지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물론 현행 교육과정의 8분야들이 교과서의 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8 특정종교의 전통과 사상”의 분량을 꼭 8분의 1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위에 제시된 것처럼, 각 교과서들은 아직도 이 부분에 거의 반이나 그 이상에 해당되는 너무 많은 양들을 할애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 이 부분의 교육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으나, 너무 비대하여 보편적인 종교교과서로서의 균형이 깨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들이 예전의 순수 종파적인 “성경” 교과서나 “불교” 교과서이기를 넘어서 보편적인 “종교” 교과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심장하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각 교과서들이 공통 교육과정 이후 자체종교만을 넘어서 타종교들과 그들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종교의 개념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

기 때문이다.

먼저 종교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신교는 “종교”를 전통적인 어원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다. 즉 한자어 “종교(宗教)”라는 것은 영어 “릴리전(religion)”이 번역된 것인데 본래 라틴어에서 유래하며, “사람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 되며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한다. 결국 매우 서구 신학적인 틀에서 제시되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한편 불교 측에서 나온 교과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의 영역과 그 너머의 초월적인 실재나 이상을 구별하는데… 종교는 후자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거나 강력하다거나 아니면 이상적이라고 여기며, 전자는 그에 종속되거나 불완전한 상태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성(聖)과 속(俗)이라는 용어를 적용하기도 한다 …”고 한다. 이 부분은 외부의 종교학자에게 의뢰하여 집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너무 대학의 종교학 서적을 여과 없이 옮겨 놓은 것 같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교적인 특색도 별로 없다.

이에 비해, 가톨릭에서 출판한 교과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직접적인 종교정의를 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포이에르바하, 마르크스, 프로이트 등의 종교비판들을 소개 하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한 뒤 학생들이 나름대로 종교가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특히 과학이 발달해도 인류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고 종교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식이다. 매우 열린 접근이다. 아무튼 모든 교과서들이 자기 종교의 틀 안에서만 종교를 보아오던 옛 시각을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보게 된다.

타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포함하게 된 것은 공통 종교교육 과정이 형성된 이후 제작된 교과서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다. 그 이전에는 각개 교과서들은 오직 자기 종교에 대해서만 다루었을 뿐 타종교는 논의의 대상이었다. 바티칸 제 2공의회 이후 가톨릭은 타종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 왔지만, 한국의 가톨릭 고등학교 교과서는 다른 종교들을 기원과 배경, 사상과 교리, 경전 그리고 한국에서의 전개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다. 일반 세속적인 역사나 윤리 교과서의 내용과 별 차이가 없

는 단순 지식이다.

한편, 개신교의 교과서는 “우선 우리는 다른 종교가 갖고 있는 좋은 점, 역사 속에 나타난 그들의 업적, 그들이 가르치는 윤리적 교훈에 공감해야 하고, 그들의 예배 의식, 교리 등도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다른 종교를 인정하되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이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기독교의 전통 신앙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을 견지하고 있다”고 한국 교회들의 상당히 보수 신학적 성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불교 측에서 나온 교과서는 “종교 간의 화해와 이해”라는 독립적인 절을 만들어 타종교에 대한 매우 열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자기 종교만이 진리라는 배타주의나 다른 종교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역시 자기 종교만이 진리이므로) 그를 흡수해 버리려는 포괄주의가 아니라, “종교적 자아 중심에서 떠난 것이 다원주의”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현대에 요청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들의 교리들은 “산봉우리를 향하는 많은 길들과 무지개의 다양한 색깔들, 병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약들 … 처럼 하나의 실재(진리)를 나타내는 방편”이라고 한다.

IV. 종교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안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1980년대에 종교교과목이 정규화되었고 그 결과 공통 교육과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 오늘날까지 출판된 종교교과서들은 대체로 그 교육과정에 준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규화 이전의 각개 종교별 교과서들에 비해서 정규화 이후에 나온 교과서들은 판이하게 다르다. 즉 예전의 종파적인 특수적 교육내용에 종교지식교육과 종교정조교육을 포괄하는 보편적 교육내용이 정규화되면서 덧붙여진 셈이다.

기본적으로 종립학교들의 역사와 설립취지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의 종파적 교육은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종교교과서의 정규화는 종립

학교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등학생의 교양 선택과목으로 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종교교과서는 종파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공통 교육과정의 성립된 이후 교과서들은 점차로 보편 교육적 내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종립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완전히 종파성이 제거된 교과서는 없다.⁹⁾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본다. 사실 다른 나라의 대부분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종파적 교육만을 위한 교과서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종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교과서가 공통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보편적 종교 교육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가를 공론화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선 중요한 것이다.

한편 교양 선택과목인데 현행 교과서들은 사용자가 그다지 폭넓게 고려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다. 우선 내용이 너무 교리와 역사 위주이고, 심지어는 대학 교재들을 단순히 압축시켜 놓은 듯한 면도 있다. 배정된 시간에 비해 분량이 너무 많고, 흥미를 유발시키지도 못하는 것 같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대개 통학거리 등에 근거하여 컴퓨터로 강제 배정된다. 따라서 종립학교라고 해도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이 사실상 더 많다. 그런데 이런 비신자 학생들을 위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심지어는 교사들조차도 종파적 교육만 주로 받았을 뿐 타종교 등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인데 교과서는 그들을 위한 충분한 길잡이가 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실제 학교 수업에서 종교교과서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그다지 인기가 없고, 부분적으로만 사용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근에 일부 종단들에서는 멀티미디어 자료 등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보충자료들을 개발해오고 있다.

특히 비신자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종교교과서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특정 종파적 내용은 대폭 축소되고, 보편 교육적 내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편 교육적 내용에서도 단순한 세

9)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그런 교과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어떤 학교에서 그것을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을 지 현재로서는 의문이다. 그러나 한국 종교교육의 미래를 위해서는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이다.

계종교들의 역사와 교리에 대한 종교지식교육은 다른 세속 과목들에서도 다루어지고 학생들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그보다는 인간의 내적인 존재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정조교육 내용이 종교교과서의 진정한 독특성이 드러나는 면이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한국 고등학교 종교교과서들은 이 점이 취약하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 종교의 의례와 상징 및 종교공동체와 연관된 구체적인 다양한 종교적 체험 내용 등을 더 많이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모른다.

Abstract

A Study of Religion Textbooks in Contemporary Korean High Schools

Kim, Chong-suh

In 1980s, religion courses in Korean high schools were regularized and it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a common religion curriculum. Thus, religion textbooks published after the regularization can be said to follow the curriculum and are wholly different from those that the schools established by particular religions had used before. Universal education, consisting of educations of religious knowledge and religious sense, was added to the old parochial education of particular religions with regularization.

Actually, most private schools established by particular religions in other countries have used textbooks for only parochial education. In the Korean case, it is, above all, important that the current religion textbooks for high school students are based on a common religion curriculum. Moreover, it is really significant that the extent of how much universal religious education needs to be expanded in the textbooks is discussed in a public forum in Korea.

Parochial contents of particular religion will have to be sharply removed and universal contents of religion must be expanded in the future. Above all, the real aspect proper to religion textbook is thought to be characterized by the education of a religious sense in which human comes to pursue a transformation of his inner being.

Key word: Religion Textbooks, High School, Religious Education